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사례 연구*

권 순 우**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별면담과 심층면접을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교수-학습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향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청각장애 대학생 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지원 실태 중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어통역을 받고 있는 과목은 별 어려움 없이 수업 내용을 대부분 잘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과 계통의 청각장애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외의 내용으로는 연구 참여자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다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 중 수업 및 학습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어통역과 속기통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도 전자출결 시스템, 복지장학금 제도, 수강신청 편의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의 다양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강사에 대한 만족 정도는 연구 참여자 3명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 강의 내용의 다양성 부족, 둘째 재미 있고 흥미있는 수업 진행 요구, 셋째 청각장애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수어통역, 학습지원, 청각장애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4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ksww1114@hanmail.net)

1. 서론

1. 연구 목적

1995년도부터 ‘장애학생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장애학생 대학 특례 입학 제도로 인하여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증가함으로 인해 대학에 장애학생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캠퍼스 내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서비스와 대학생활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즉,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입학만을 허용하였을 뿐 캠퍼스 내의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학업적인 지원 및 관리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은 대학 내에서 자신의 학업 및 생활의 질적인 만족을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완전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시에서 장애학생 대학 특례 입학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대안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로 그동안의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사회의 중심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었다(김경화, 2015). 그러나 1996년 우리나라의 4개 대학 35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63%의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 1997년에 전국의 32개 대학 115명의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무려 98.3%에 해당하는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조한진, 1997).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격년으로 각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체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평가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는 효율성이 낮으며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한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되지 못한 채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학습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문자통역, 강의 형태에 따른 지원, 강의자의 자세, 수어통역의 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유형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수강과목 및 강의 계획서 열람, 수강 신청,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출석 점검 등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대부분의 지원 유형에서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의자의 자세”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백유순, 2005). 이 대학은 비교적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실태가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된 곳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일부가 청각장애 학생들이다. 이들 청각장애 학생들은 주요 의사소통 수단, 교육 경험, 청력 손실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그들의 학습 및 학교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요구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은 수업과 학습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주요 서비스 요구가 될 것이며, 이는 역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청각장애 학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서비스 요구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를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대학생은 2015학년도에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대학생 3명(남 1, 여 2)으로 사례별 실태는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1차적으로 질문 내용을 지면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고, 면담을 하는 중 자신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알려 질 수 있는 내용과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2015학년도 D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참의 뜻을 밝힌 3명의 대학생이다.

<표 1> 연구 참여 대학생의 실태

성명	성별	생년월	장애 원인	의사 소통 수단	장애 발생 시기	청력검사 결과	전공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학습지원 내용
A	여	1994.1 2	원인불명	수어	1세	좌: 89dB 우: 90dB	인문사회계열	수어통역, 전문속기, 문자통역, 노트필기, 복지장학금, 수강신청 우선 배정 등
B	여	1994. 6	고열	수어	4세	좌: 110dB 우: 90dB	인문사회계열	
C	남	1994. 7	고열	수어	4세	좌: 100dB 우: 105dB	공대계열	

1) 연구 참여자 A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A의 부모는 A가 말할 시기가 되어도 말하지 않고, A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청력검사를 해 보았다고 한다. 의사가 딸의 청각장애를 판명해 주자 A의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A의 아버지는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오던터라 충격이 더욱더 컸다고 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A는 나중에 아버지께 이 말을 듣고 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가슴이 먹먹해 했다.

A의 삼촌은 특수교사는 아니셨지만 일반학교 교사였기에 발달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제 때 교육을 해주었다. 또 책을 좋아하는 A를 위해 매번 학교에서 책 20권씩 빌려왔다. 어렸을 때 A는 일반유치원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민 끝에 H유치원으로 전학시켰다. 그랬더니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떼쓰던 A가 스스로 먼저 일어나 옷도 입고 가방도 미리 매는 등 빨리 H유치원에 가자고 재촉하는 등 긍정적인

아이로 변했다고 했다.

자신감도 없고 남들 앞에도 잘 나서지도 못했던 A가 바뀌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바로 태권도와 수어로 가르치는 공부방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태권도를 하면서 체력이 키워지고 체격이 다부져지면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A를 무시하더라도 맞설 수 있다는 용기도 가지게 되었다. 또 고등학교 2학년쯤에 지인의 소개로 수어로 수업하는 공부방에 다니게 되었는데 첫 분위기부터 정말 신선했다. 그때 농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A가 간 날이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참석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다. 수어도 잘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멋져보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부방에 다니기로 결심했고, 계속 공부방에 다니면서 농인 친구들과 수어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 수어 실력도 확 늘었다. 그리고 그때 농인에게 있어서 수어는 언어이고, 농인이 수어를 사용해야 비로소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A는 부모 모두 농인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A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은 H특수학교 유치부를 다니면서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도 받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여 현재 D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교수들에게도 인정받는 성실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B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B는 어릴 때부터 여러 병치레를 통해 부모님의 애를 많이 태웠다. 어느 날 가족들이 B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도 반응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았고, 그 때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B의 부모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B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며, B의 먼 미래를 생각하시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낙천적이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B는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한 아이로 자랐다. 좋은 친구들도 여럿 만났고,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고등학교 시절, B는 그의 청각장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 장애로 인해서 하고 싶은 많은 것에 도전할 수가 없었고, 많은 제약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전화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B는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꿈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청각장애인을 돕는 사람이 되자는 꿈이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정이 많던 B의 미래의

모습과 겹쳐져 '사회복지사'로 꿈이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해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 입학한 후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도전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D대학교 5동아리를 통해 B의 일생의 특별한 인연들을 만났고, 5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배들은 그에게 농정체성을 발견해 주었고 자신감과 새로운 용기를 주었으며, 예전의 밝고 명량한 학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B는 어릴 때부터 명량 쾌활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이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속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청각장애로 인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전달받기가 어려웠고,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제약을 받아 좌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며 열심히 준비하여 현재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며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3) 연구 참여자 C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농 부모님 밑에 장남으로 태어난 C는 4살에 갑작스런 고열로 청력을 잃고 청각 장애 2급을 판정받게 되었다. 그 후에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울 수 있었고, 친척들의 권유로 소리와 단절된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며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다. 차 경적소리, 오고 가는 이야기, 여러 가지 환경을 등을 듣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 놀림, 무시, 차별 등을 받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사춘기 때에는 '왜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청각장애 자체가 죄인가', '왜 청각장애인은 강제로 언어치료를 받아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가끔 또래들과 승패가 판가름 날 때까지 싸운 적이 있었고, 믿었던 이웃집 청인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 때부터 청인과 쉽게 친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인들에 대한 증오와 경계심을 품게 됐다고 했다. 이런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집이었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특수학교 밖에 없었다. 방과 후에는 언어치료를 강제로 받아야했지만 또래 친구가 있었고,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다.

특수학교 출신인 C는 일반학교 친구들에게 항상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현재 D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수업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수학과 영어 과목은 통역을 받기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C는 청력이 양쪽 귀 90dB이 넘는 농에 해당된다. 문장력 및 독해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부족한 부분을 항상 노력으로 극복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현재 D대학교 동아리 활동과 학과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점을 비롯하여 교우관계, 사회성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자료 수집 절차

1) 면담 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는 D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반구조화 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지원 실태와 그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면담에 대한 막연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에서 사전 계획에 의한 질문 내용을 구성하는 반구조화 된 면담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예비 면담이 끝난 후 면담 질문을 보완하고, 면담 실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고 최종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수행하기 위한 질문지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질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그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면담 영역	세부 질문 사항
학습 지원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 대학생의 강의와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학습 지원 내용 중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 - 청각장애 대학생의 강의 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학습 지원 내용 중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 -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적 서비스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학습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및 학습 지원의 만족 정도는 어떠한가? -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떠한가? - 교·강사의 만족 정도는 어떠한가?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면담 실시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그들이 강의실에서 교수-학습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받고 있는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대학생 3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별한다. 그리하여 미리 계획된 질문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서 관심과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유기웅 외, 2014).

따라서 청각장애 대학생 사례 3명을 선정한 후 1차적으로 질문 내용을 지면으로 제시하여 그들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하였으며, 2차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때 면담 내용 분석을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 바르게 전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차 면담 과정 중이나 면담 종료 후에 연구 참여자에게 이전 면담 내용 전사본을 이메일이나 직접 전달 방법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과 설명에 따라 수정 하였다.

논문 정리 과정 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면담이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 차례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기간은 2015년 9월 말부터 2015년 12월 초까지 수시로 면담을 하였고, 수어와 함께 구화도 함께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했기에 서로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3) 면담 자료 전사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캠코더 V2000으로 동시 촬영되었고, 촬영된 내용의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의 정확한 전사를 위하여 전사 작업 이후에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재차 촬영된 내용을 보면서 재확인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양은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 자간 0'으로 작성했을 때 A4용지 11쪽이었다.

3. 자료 분석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규범적 질문이 아닌 기술적 질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내용과 청각장애 대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어진 연구 문제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서의 질적 연구 접근의 타당성과 산출된 자료의 분석 방법을 진술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접근은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적합하다. 행위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행위자들의 동기,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접근은 다른 방법들이 간과하기 쉬운 행위의 구체성, 현실성, 상호성, 관계성을 중시함으로써 행위의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지, 면담 등을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유목화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논평하였다(권순우, 2005).

4. 질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 노력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면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정확한 전사를 위하여 전사 작업 이후에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재차 촬영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진실성 점검 기준 가운데 동료 연구자 조언, 참조 자료의 보관, 구성원 간 검토 등을 활용하였다(김영천, 2006; 권순우, 2015).

본 연구를 위한 진실성 확보에서 첫째, 동료 연구자 조언은 면담 자료의 전사본을 가지고 연구자와 D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2인이 분석과 해석 과정이 적합한지를 살피고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둘째, 참고 자료의 보관은 전사 자료와 면담 촬영 자료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정이나 연구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셋째, 구성원 간 검토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한 내용을 점검 받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지원 실태

3명의 연구 참여자가 재학하고 있는 D대학교는 2000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전담기구인 'D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본부 행정부서로 설치하였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 업무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① 교수·학습 지원 ② 시설·설비 지원 ③ 생활·복지 지원 ④ 상담·진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수·학습 지원 중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어통역, 전문속기통역, 문자통역(동료 학생이 수업 내용을 타이핑해 주는 것), 노트 필기(필기 내용을 지원 받는 것),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강의와 관련된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강의와 관련된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일반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점이라면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 질문을 잘 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답도 잘 하지 않는 것,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지만 쉽사리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별 토론이나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아무래도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이다보니 관련된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및 속기서비스가 없다면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강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놓치기가 쉽다는 점도 있으며, 모든 통역서비스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전달하므로 시간차가 있어 보고 필기할 때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중요한 점은 무엇이든지 다 반드시 메모장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수업계획서를 꼭 챙겨보았고, 친구들의 필기 내용을 빌려 베껴 쓰고 공부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교재를 미리 읽어갔는데 대략적인 내용과 구성을 알고 있으니 필기할 때도 훨씬 수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B)**

강의 시 어려운 점은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 되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은 전공 수학에 관련된 과목이다. 전공 수학 과목은 수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어통역이 없는 수학과 관련된 강의에서는 공부하기가 가장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도우미랑 같이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1대 1이 아니라 1대 다수라서 피드백이 어려웠고, 마음이 불편했다. 청인 사이에 소외되기 쉽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학 과목은 극복했다기 보다는 참으며 버티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C)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A는 강의 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수어통역을 받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기에 대학교 강의가 낯선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수어통역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수업이 훨씬 편하고 쉽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수어통역을 통해 강의를 전달 받고 있는 관계로 교·강사의 강의 내용과 시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질문이나 의견 개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타이밍을 놓쳐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조별 토론이나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강의 시 연구자가 직접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도 A처럼 현재 대부분의 과목에서 수어통역을 받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수업 내용에 대해 필기를 하는 순간에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순우(2013)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회의 진행에 따라 항상 한 박자 늦게 이루어지는 수어통역은 농교사들이 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할 기회를 자주 놓치게 된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B는 수업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메모장에 메모하고, 미리 수업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강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의 필기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미리 교재에 대한 예습도 수시로 병행하여 강의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근면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연구 참여자 A·B와 비교해 볼 때 강의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통역이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연구 참여자 A와 B는 인문사회 계통의 전공이라 대부분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것에 비해 이과 계통의 공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연구 참여자 C는 상대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기호와 숫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어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숫자에 대한 통역은 통역이라기보다는 필기에 가까운 전달이기에 교·강사의 칠판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D대학교에서는 수어통역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수학 관련 교과목은 통역 없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학 과목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멘토와 함께 수업 후 특정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1:1 프로그램이 아닌 멘토 1명과 멘티 다수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라 개인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다른 멘티 청인 학생들 사이에서 소외되기가 쉽고,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수학 관련 교과목은 극복했다기 보다는 참으며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참여자의 고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강의 외의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강의 외의 어려운 점과 극복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 있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끼리는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설령 수어를 모르는 친구라 하더라도 구화나 필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도 구화나 필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함께 이야기할만한 공통점을 쉽사리 찾기 어렵고, 구화나 필담을 귀찮아하는 친구가 간혹 있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친구들은 청각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편이다. **(연구 참여자 A)**

조별과제와 토론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역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강의 외에 따로 만나는 조모임에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온전히 제 자신의 귀와 눈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읽는 데 집중해야하므로 체력이 매우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토론 내용도 다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항상 저 혼자만 소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톡 방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B)**

일반 생활에서도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 중요한 연락을 제 때 못 받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경찰서, 법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항상 중요한 정보를 놓쳐 기회를 못 잡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항상 정보에 집중하고 지인에게 부탁을 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 C)**

이상에서와 같이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강의 외의 어려운 점으로 ‘의사소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 A는 구화나 필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B는 조별 모임의 예를 들면서 조별 토론 내용에 대해 카카오 단체톡 방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C는 다양한 정보 탐색과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전달받는다고 하였다.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극복 방법에 대해 다른 상황의 예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성애 등(2003)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청각장애 학생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이 대부분이며,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 주로 친구관계와 교직원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적 서비스 및 개선점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적 서비스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어통역을 받을 때, 어려운 점은 수어단어에 없는 생소한 전문 용어들이 계속 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한 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 수어 통역을 해주는 선생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몇 개를 선생님과 나만의 약속으로 임시로 수어단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속기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내용이 오로지 타이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오는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를 알 수가 없다. 수어통역은 수어통역선생님이 표정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것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전문속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속기 선생님께 부탁하면 나중에 수정해서 주실 때,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주신다. 마지막으로 문자통역은 타자실력이 너무 느려 수업내용을 다 쳐주지 못하는 도우미 학생이 배정될 때,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난처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바로 말해 도우미 학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자통역을 해주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꺼끄러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연구 참여자 A)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수업 관련 서비스는 통역서비스 등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성을 갖춘 수어통역사와 전문속기사 선생님들에 한해서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수는 정해져 있고 원하는 학생이 많아 수업 통역 배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학생 문자통역도우미가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타자가 느리거나

불성실한 도우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장애지원 센터에 바라는 점은 학생 문자통역도우미를 모집할 때 타자속도 테스트를 하고, 3번에 걸친 장애이해교육 및 문자통역에 대한 교육을 거쳤으면 좋겠다. **(연구 참여자 B)**

기존 통역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역서비스가 불가능한 수업이 존재한다. 그것은 통역서비스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C)**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D대학교에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적 서비스는 크게 나누면, ① 수어통역 ② 전문속기통역 ③ 문자통역 ④ 노트필기 대어 등이다(대구대학교, 2016).

수어통역에서의 어려운 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수어단어에 없는 용어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에 대해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윤은희, 최성규(2016)의 연구에서처럼 수어로 통역할 때 새로운 단어가 수어로 표현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수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에 따라 전문용어가 자주 언급되는 상황에서 수어통역사와 학생만이 알 수 있는 특정 싸인을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고츠키와 같은 외국인의 이름이나 프로그래밍, 자바, C언어와 같은 특정 전문용어는 영어 약자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D대학교에서는 수어통역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D대학교에서만 통용되는 전문용어들이 학과별로 모두 합치면 이미 수 백 개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D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다수의 학교에서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한국수화언어법’(약칭 한국수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한국수어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의학수어, 정보통신수어, 종교수어 등을 개발한 축적된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에서 제각각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과별 전문용어 개발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속기통역의 어려운 점은 모든 수업 내용이 일정한 문자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강사의 목소리에서 표현되어지는 감정이나 내용의 중요도 등은 전달되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의 중요도 파악이나 감정에서 오는 미묘한 정보를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타이핑 된 내용 점점 시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전달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D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 6명, 전문속기통역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2016). 9명의 통역사들이 33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을 모두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수어통역사나 전문속기통역사를 배정하고 후순위에 있는 여러 강좌들은 문자통역으로 대신한다. 문자통역은 동료 선·후배 학생들 중 특정 절차를 거쳐 선발(장학재단 도우미사업)하여 수업에 배치하는데 아무래도 위의 2가지 통역과 비교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문자통역 도우미 학생들을 선발할 때 신청한 전원의 학생들을 몇 시간의 도우미 교육만을 이수한 뒤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을 바로 진행하기에 문자통역 도우미의 타자 능력이나 도우미의 성실도 등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구 참여자 B가 제시한 타자 속도 테스트와 3회에 걸친 장애이해교육 및 문자통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 활동을 시키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트필기 대여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1) 수업 및 학습 지원의 만족 정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수업 및 학습 지원의 만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 통역 지원은 전적으로 만족한다. 또한 출석 점검하는 경우는 예전에는 교수가 직접 학생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방식이어서 수어통역 선생님이나 전문속기선생님이나 문자통역 도우미 학생이 출석 점검을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은 전자출결로 바뀌어서 자신이 직접 핸드폰으로 출석 점검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출석을 부를 때 조마조마해하며 내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더 좋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해 복지장학금을 학기마다 80만원씩 준다.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복지장학금을 주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연구 참여자 A)*

전반적으로 수업 및 학습 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수어통역사와 전문속기사의 수를 더 늘렸으면 한다는 점, 체계적이고 실력 있는 학생문자통역 도우미의 자격조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 참여자 B)*

수강 신청할 때 장애인이 항상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수어통역, 전문속기통역서비스는 잘 갖추고 있어서 만족스럽다, 출석 점검은 요즘 전자출결시스템으로 하는데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장학금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자주 가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이과 수업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연구 참여자 C)*

수업 및 학습 지원에 있어서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어통역과 속기통역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2015년 1학기부터 새롭게 실시된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모든 장애학생에게 지급되는 80만원의 복지장학금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수강 신청할 때 장애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듣고 싶은 강의를 인원 제한에 걸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및 학습 지원에 대한 몇 가지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6명의 수어통역사와 3명의 속기통역사들이 33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의 통역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통역사 수를 더 늘려줄 것과 문자통역 도우미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은희, 최성규(2016)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어통역사에 대해 그리 큰 불만은 없고 통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어통역사의 수적 부분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자통역 도우미의 경우 타자가 너무 느린 학생이 배치된다던지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배치되어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자통역 도우미를 배치할 때 충분한 자격을 갖춘 도우미 학생이 배치되어 청각장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전문속기서비스를 받았다, 더 이상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의 입모양을 훑어지게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 없고, 수업 내용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수어통역사 선생님과 전문속기사 선생님 또한 학생의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매 수업시간마다 열심히 통역을 해주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별과제를 할 때, 수어통역사 선생님이나 전문속기사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는 내가 스스로 노트 복을 들고 가서 친구에게 내용을 타이핑 해주기를 부탁한다. *(연구 참여자 A)*

모두 다 훌륭합니다. 몇 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십니다. 특히 수어통역사 선생님들은 각자 대학과 대학원을 복지 또는 교육 쪽을 전공하셔서 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시고, 각 전공수업의 성격에 맞춰 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통역하실 때 더욱 이해가 쉽고 잘 해주십니다. (연구 참여자 B)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수어통역사들이 각 학생들의 시간표를 참고해서 담당하는 시간을 나눕니다. 배치된 수어통역사들은 대부분 시간을 잘 지키고 통역하는데 성실합니다. 전문속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구 참여자 C)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로 국한시켜 면담한 결과 연구 참여자 A, B, C 모두 수어통역과 전문속기통역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A와 B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C는 S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였다.

연구 참여자 A, B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수어통역과 전문속기통역을 받았기에 만족도가 연구 참여자 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을 받았기에 수업 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일반학교에서 얼마나 어렵게 수업을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은희, 최성규(2016)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수어통역을 통해 수업과 소통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중·고등학교 때와 다른 대학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초·중·고등학교 때 수어통역의 지원 부재로 받아야 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어통역사 배치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통역사는 배치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업 시간 내내 교사의 입 모양을 보느라 진땀을 흘리며 친구들의 필기 내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학교생활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에만 통역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통역사를 반드시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윤은희, 최성규, 2016).

이한나와 최상배(2015)의 연구에서도 수어통역사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초·중학교 상황에서 청각장애 부모가 개인적으로 수어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이 나타나 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는 정보접근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사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보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합이라는 환경을 말하기에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수업 외, 조별 토론이나 개별 의사소통 기회가 있을 때는 수어통역 및 전 문속기통역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문자통역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3) 교·강사에 대한 만족 정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교·강사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이 그러하듯이 잘 가르치시는 열정적인 교수님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D대학교에는 아직 그런 교수님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몇 년을 반복해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숙달된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변하는 사회에 맞추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교수님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연구 참여자 A)*

교수님들 중에서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모두 다 똑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교수님도 많고, 가끔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한 사례로 농선배 중 한 분이 강의에 들어갔을 때 보통 농학생들은 통역사와 함께 더 잘 들리는 곳으로 가기 위해 맨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수어통역 하는 모습이 신경 쓰인다고 뒤로 가 앉으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건의 내용으로 장애학생이 특정 강의를 수강 신청했다면 사전에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의 장애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배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B)*

문과입장이 아닌 이과학생의 입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과 과목에는 수학, 물리, 과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출신 청각장애인들은 이과 과목을 가장 어려워 합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수학 1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이과 쪽에서 수학2, 기하와 벡터, 미분, 적분 등을 배웁니다, 이것은 특수학교 출신 청각장애인들이 일반학교 출신 학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학 강의실에서 같이 수업하게 되는데 청각장애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출신 청각장애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잦고, 그만두지 않더라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악영향으로 다가옵니다.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3명 모두 교·강사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수업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둘째,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재미있고 흥미있는 수업 진행을 원했으며, 셋째,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하였다.

현재 D대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교양영어(I), 교양영어(II)를 듣는 대신에 청각장애 학생들은 미국수어(I), 미국수어(II)를 듣도록 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많지 않기에 교양과목 폐강 기준인 30명과 관계없이 10여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강사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장애 인식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수어통역사가 없어도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온다고 하면서 수어통역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 강의 시 일반 학생들이 교·강사는 쳐다보지 않고 수어 통역하는 모습을 쳐다본다고 수업에 방해가 되니 수어통역 위치를 맨 뒷자리에 가서 하라는 교·강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청각장애 학생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음)이 본부에 전화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불만을 알려 자신을 난처하게 했다고 청각장애 학생을 꾸짖는 경우도 있었다고 K수어통역사가 겪었던 경험담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백유순(200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많은 청각장애 학생들은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자의 이해와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를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지원 실태 중 강의와 관련된 내용 중 수어통역을 받고 있는 과목은 별 어려움 없이 수업 내용을 대부분 잘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기호와 숫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어 통역이라기 보다는 필기에 가까운 전달이기에 D대학교에서는 수어통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과 계통의 청각장애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외의 내용으로는 연구 참여자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다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A는 구화나 필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B는 카카오단체톡 방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을 취하였고, 연구 참여자 C는 다양한 정보 탐색과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이 모두가 강의 외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D대학교에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적 서비스는 수어통역, 전문 속기통역, 문자통역, 노트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어통역에 있어서 개선점은 현재 수어단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어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속기통역의 개선점은 모든 수업 내용이 일정한 문자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강사의 목소리에서 표현되어지는 감정이나 내용의 중요도 등도 전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통역의 개선점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방법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므로 타자 속도 테스트와 장애이해교육 및 문자통역에 대한 인성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 중 수업 및 학습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어통역과 속기통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도 전자출결시스템, 복지장학금 제도, 수강신청 편의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의 다양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강사에 대한 만족 정도는 연구 참여자 3명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수업 내용의 다양성 부족, 둘째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재미있고 흥미있는 수업 진행 요구, 셋째 청각장애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특정 대학 3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다수의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지원 실태 및 만족도와 연계하여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 학생의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지원 실태와 만족도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통역에 대한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권순우 (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순우 (2013). 청각장애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22(4), 181-206.
- 권순우 (2015).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297-319.
- 김경화 (2015). 4년제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장애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187-202.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대구대학교 (2016). **2016학년도 1학기 전체교수 회의 자료**. 대구대학교.
-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2016). **2016학년도 제2차 장애학생지원위원회 회의 자료**.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백유순 (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4).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은희, 최성규 (2016).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이 주는 의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183-209.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조한진 (1997). 장애인 대학과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Hamre-Nietupski, S., Nietupski, J., Krajewski, L., Maravec, J., Riehle, R., McDonald, J., Sensor, K., & Cantine-Stull, P. (1992). Enhancing integration during the summer: Combined educational and community recreation option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68-74..

A Case Study of Actual Condition of Learning Support for and Satisfac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Kwon, Soon Woo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grees of satisfaction of the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learning support for them and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Three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whom we attempted to identify how to improve the direction and satisfaction of appropriate support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through individual an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lecture-related learning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subjects received contents of lectures without difficulty whe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as provided during the lectures, while those studying natural sciences had relatively much difficulty in following lectures. In terms of contents besides lectures, all the subjects frequently felt difficult in communication. The students in consequence wanted a wide range of interpreter services provided by their college at national level in all the activities at school. Second, as for the supports of lectures, learning, and communication, all the three participants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 items. They felt particularly satisfied with sign language and shorthand interpretation, followed by electronic attendance-absence recording systems, need-basis scholarship, and convenience of signing-up courses. However, despite their contentment in varied learning support in school, all the three participants showed extremely lower satisfaction with professors and instructors, presenting three reasons—lack of diversity in lecture contents, shortage of interest and attraction in lecturing, and failure to understand basic traits or culture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learning support,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논문 접수: 2016. 12. 05 심사 시작: 2016. 12. 10 게재 확정: 2017. 01. 05